

# 16세기 후반 17세기초 醫官 許浚의 생애 再考

金 潤

- |               |            |
|---------------|------------|
| 1. 미궁 속의 許浚   | 3. 청년기의 許浚 |
| 2. 許浚의 출생과 家族 | 4. 內醫院 생활  |

## 1. 미궁 속의 許浚

허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논의는 20세기 초반 이능화에서 비롯되었다. 일제 시대에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정력적으로 연구하였던 이능화는 1939년에 출간되었던 『朝鮮名人傳』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허준을 소개하였다.

허준 선생은 본시 조선의 世族이었다. 선조대왕 시에 內局醫官이 되어 의술에 정통하였다. 25년 임진에 왕의 西駕에 호종하였다가 공훈을 세워 벼슬이 양평군에 이르렀다. (중략) 동의보감은 전의 三種 醫書(항약집성방, 의방류취, 의림촬요)에 비하여 매우 진보된 것이다.<sup>(1)</sup>

이렇게 시작된 허준 연구는 이후 많은 성과를 내면서 허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만들어갔다.<sup>(2)</sup> 특히 노정우는 허준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점

(1) 李能和, 1948 「許浚」 『朝鮮名人傳』 上 (조광사) 304–305면 참조. 『조선헌명인전』은 원래 1939년에 간행되었던 것인데 필자는 1948년간본을 이용하였다(이하중외 편, 1994 「李能和 著作目錄」 『李能和研究』 (집문당), 214면 참조).

(2) 三木榮, 1962 『朝鮮醫學史及疾病史』

노정우, 1965 「許浚:1546~1615」 『人物韓國史』, 박우사.

金斗鍾, 1966 『韓國醫學史』, 탐구당.

노정우, 1977 『韓國醫學史』 『韓國文化史大系』III

洪文和, 1981 『本草學者로서의 許浚』 『傳統科學』2

김창복, 1986 『16세기 후반기 17세기초 허준의 활동과 동의보감』 『역사과학』4

許津, 1986 『許浚의 생애와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의대논문집』9

을 고려하여, 스스로가 직접 장시간 고증 답사한 결과라면서 허준의 출생지와 스승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설명에 신뢰성을 더했다.

그의 선대는 거의 대대로 中鮮 지방을 중심하여 거주하고 활동하였으나 허준의 할아버지가 廣尙道 右水使를 오래 역임했고 그 할머니가 진주 출신의 柳氏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어렸을 때 生長은 역시 경상도 산청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당시로부터 근세까지도 許·柳 양씨가 그 지방의 쌍벽인 大姓이었던 사실과 그 당시 산청 지방에 柳義泰라는 神醫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과 의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 호탕하고 기인으로서 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인 재질과 지식을 키워 준 스승이었다는 것이 여러 각도로 미루어 보아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sup>(3)</sup>

사실 노정우의 이러한 설명은 그 근거가 고증과 답사라는 데 불과할 뿐 뚜렷한 문헌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 이후 1977년의 글에서 노정우는 다시 한번 특별한 각주 없이 '용천부사 허론의 서자로 태어난 허준은 산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유의태에게 의술을 배워 1574년 의과에 합격하였으며 내의원에 봉직하였다'고 기록함으로써 허준의 생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정사실화하였다.<sup>(4)</sup>

1965년과 1977년에 노정우의 설이 제시된 후 그가 직접 답사·견문한 결론이라는 점을 중시해 다른 연구자들은 큰 비판없이 허준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 대개 그의 설을 따르게 되었다.<sup>(5)</sup> 마침내 근래 소설로도 형상화되어 유의태에게 의학을 공부한 허준이 마지막으로 스승을 해부하면서 자신은 大醫家로 도약한다는 드라마틱한 탄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노정우의 설명의 진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일찍부터 한국의 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김두종은 1971년 허준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 1990 「東醫寶鑑의 辨證에 관한 研究」『경희대한의대논문집』13

金洛必, 1991 「東醫寶鑑의 道教的 성격」『科學과 哲學』 제2권, 통나무.

許 程, 1992 「東醫寶鑑의 保健史의 研究(1)」『韓國保健史學會誌』2-1

金 潤, 1994 「許浚의 『東醫寶鑑』研究」『韓國科學史學會誌』16-1

(3) 노정우, 1965 앞의 글.

(4) 노정우, 1977 앞의 글.

(5) 허 진, 1986 앞의 글.

(6) 이은성, 1991 『소설 동의보감』, 창작과 비평사.

“허준의 자는 청원, 본관은 양천으로서 명종 때에 출생하였다.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하는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여튼 그는 젊어서부터 名醫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sup>(7)</sup>라고 하여 불확실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역사학자인 권병탁은 族譜 등 보다 많은 역사 자료에 의거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허준의 생애를 재구성하였다.<sup>(8)</sup> 비록 노정우에 비하여 역사적인 자료에 즉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산청에서 성장하고 유의태 등에게 수학하였다는 근거없는 설 등을 삭제하였다.

이밖에 북한의 연구자인 김창복은 허준의 집안이 世族의 후예였음을 강조하면서 “허준이 태여났던 집안은 이조봉건시기 이름있는 의학자들이었던 허공, 허응, 허종, 허지 등이 나온 의학자 가문이었다. (중략) 허준은 1540년 대에 경기 김포군 양천의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sup>(9)</sup>고 하였다. 그러나 첨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미 20대에 의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허준의 입지적 자세를 칭송하는 데<sup>(10)</sup> 급급하여 역시 역사적 실증성이 뚜렷한 자료를 각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다만 조선 전기 몇몇의 의학자를 배출하였던 양천 허씨 가문의 배경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학자 집안의 후손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필자도 일전에 허준에 관한 글을 쓰면서 그의 어린시절의 자료를 어떠한 역사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후일 허준의 의학 지식의 형성 배경이 되었던 교유 관계만을 중심으로 서술한 적이 있었다.<sup>(11)</sup>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에 의해 짐작적으로 제시된 허준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김두종, 1971 「허준—동의보감에 새긴 인술」『한국의 인간상』3, 신구문화사, 376면.

(8) 권병탁, 1986 『藥令市研究』, 한국연구원, 4장.

(9) 김창복, 1986 앞의 글.

(10) 김창복, 위와 같음.

(11) 김호, 1994 앞의 글.

- ① 경기도 陽川에서 출생하였다.
- ② 경상도 산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 ③ 산청에서 유의태로부터 의학을 전수 받았다.
- ④ 선조 대에 醫科에 합격 內醫院에 봉직하였다.
- ⑤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서를 저술하였다.

그 동안 알려진 허준의 생애는 이처럼 간단한 몇 가지 史實(5) 및 推論 (1)(4)과 함께 傳聞(2)(3) 등에 의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역사의 미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조대 官人이자 학자였던 미암 유희춘의 일기(『眉巖日記』: 이하 『日記』)를 꼼꼼히 독해한 필자는 허준의 출생과 젊은 시절 그리고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sup>(12)</sup>

## 2. 許浚의 출생과 家族

역사적으로 한 인물을 추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의 부모 및 출생지와 거주지 그리고 生沒年 등 기초적인 인적 사항이다. 허준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모두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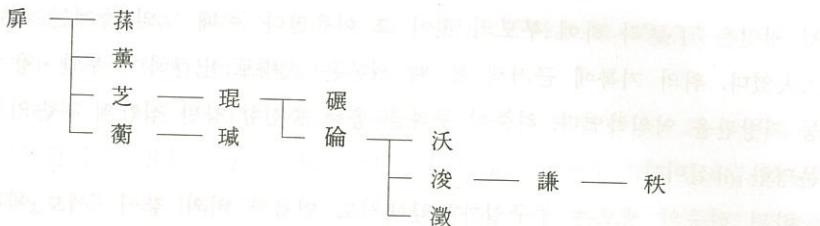
먼저 허준의 출생 연도를 보면 1546년과 1547년의 두 가지 설이 있다. 『陽川許氏世譜』(이하 『세보』)에는 1547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광해군일기』에 1615년(광해군7) 11월자의 7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역으로 추산한 결과 1546년(명종원년)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실록의 내용이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그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다. 허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許倫 혹은 許璣이라는 두 가지 설명이 제기되었다. 먼저 아버지가 허론이라는 설명이다. 『世譜』에 따라 허론을 중심으로 정리한 家系圖는 다음과 같다.

(12) 유희춘과 그의 일기 『미암일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완희, 1985 「조선 중엽 사족얼자녀의 속량과 혼인」; 『미암일기』를 통한 사례 검토」 『경북사학』8; 정재훈, 1993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3; 이성임, 1995 「16세기 조선 양반 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미암 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145; 이성임, 1995 「조선중기 어느 양반 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0.

(13) 『陽川許氏世譜』; 『光海君日記』 권97 광해군 7년 11월 壬午.



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준의 아버지는 허론이며 형제들로 許沃, 許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보』와 함께 조선후기 중인들의 가계를 정리한 『姓源錄』<sup>(14)</sup>에도 허준의 아버지는 허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허준 사후 대략 100여년 정도가 지난 18세기에 學人 李希齡(1697 ~1776)은 자신의 저서 『藥坡漫錄』에서 허준의 아버지를 허연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보』상에 伯父로 표시되었던 허연이 허준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이 허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허론과 허연 두 가지 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이희령의 설명은 허준 사후 100여년이 지난 것이고 『세보』와 『성원록』 역시 허준 당대의 기록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허준의 동생 허징이 문과에 합격하였을 때 기록된 당시의 합격자 인적사항이야말로 가장 역사적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1586년의 別試榜目的 기록에 의하면 허징의 아버지는 허론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허징과 허준의 生父는 허론임이 거의 확실하다.<sup>(16)</sup>

그렇다면 허준의 아버지 허론은 누구인가? 『세보』에는 허론이 무과 급제자이며 龍川府使를 지냈으며, 부인 손씨를 맞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監司·수령 명단을 보면, 허론이 1536년(중종31)에서 이듬해인 1537년까지 부안군수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년만에 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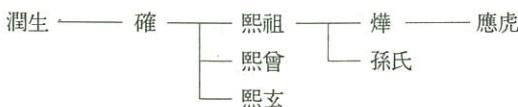
(14) 이창현 편, 『姓源錄』(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영인본, 1985) 19세기에 편찬된 책으로 고려대학에서 영인·출간하였다.

(15) 『藥坡漫錄』 권43 宣祖朝 名臣附「許浚條」(성균관대학교 영인본 中, 1995) 181~182면. “許浚 兵使碾之庶子 宣祖朝名醫也 少時術業精通 而未有名稱 試以審藥途使价赴京”

(16) 물론 허준이 伯父 허연의 양자로 立後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된 원인은 ‘丁憂’라 하여 부모의喪이 그 이유였다. 이때 그의 품계는 奉列大夫였다. 위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 허론은 武科로 出身하여 부안·옹천 등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허준이 무과를 통해 출신한 양반 집안의 후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허준의 생모는 누구일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보』에는 허론의 부인이 손씨로 기록되어 있다. 손씨에 대한 기록에는 아버지가 현령 孫熙祖이며 외조는 청주 韓士信이라고 되어 있다.<sup>(18)</sup> 손희조는 본관이 一直으로 그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sup>(19)</sup>



손희조의 경우 佐郎, 아들 煉은 監察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역시 허론과 통혼할만한 위치에 있었던 집안으로 보인다. 한편 허준의 어머니 손씨의 외조부에 해당하는 한사신의 세계를 청주 한씨의 족보를 통해 살펴보면 ‘현령 한사신은 무과 출신으로 자녀 3남 6녀를 두었는데 6녀의 사위가 손희조’라고 기술되어 있다.<sup>(20)</sup> 이로써 허준의 외가, 그리고 친가인 허론의 집안은 모두 무과를 통해 입신하였던 집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세보』의 내용과는 달리 『성원록』에는 허준의 어머니를 김씨로 등재하고 있다. 『성원록』에서 허론의 항목을 살펴보면 ‘配 靈光 金郁璇女’라 하여 허준의 어머니가 영광 김숙진의 딸인 김씨 부인으로 나타나 있다.<sup>(21)</sup> 과연 허준의 어머니는 손씨인가 아니면 김씨인가?

이 문제는 당시 허준 일가와 친분이 있었던 미암 유희춘의 『일기』에서 해결된다. 유희춘은 1569년 9월 28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奉事 金時治은 효

(17) 이동희 편, 1995 『朝鮮時代 全羅道의 監司·守令 名單』, 전북대학교, 95면.

(18) 許氏大宗會, 1980 『許氏大宗譜』 권2, 875면; 1986 『陽川許氏內今公波譜』 全, 71면; 『陽川許氏世譜』 권1, 23면.

(19) 『韓國系行譜－人』「一直孫氏一派」 2488면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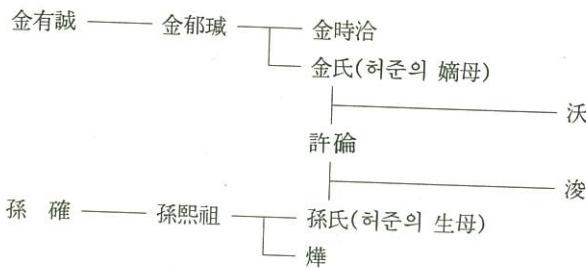
(20) 『淸州韓氏世譜』 권1, 19–20면 (1924)

(21) 『姓源錄』 865면.

자 副正 金有誠의 孫이며 허준의 嫡三寸 叔父”<sup>(22)</sup>라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허준의 적모는 灵光 金氏였음이 드러난다.

유희춘은 허준의 외삼촌 김시흡과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시흡의 문안 방문이 종종 『일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1573년 2월 10일자에는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온 김시흡의 사위를 돌보는 유희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sup>(23)</sup> 허준은 외삼촌 김시흡을 통해 이미 어려서부터 유희춘과 인연을 익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허준은 아버지 허론 그리고 어머니 손씨 부인 사이에 둘째로 태어난 서자였음이 확실해진다. 이를 토대로 허준의 世系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럼 허준의 생모 손씨는 良妾이었을까, 아니면 賤妾이었을까? 허준의 아버지 허론이 정4품의 奉列大夫에 올랐던 점과 허준이 1571년 당시 4품직에 해당하는 내의첨정을 제수받을 수 있었던 점<sup>(24)</sup> 그리고 『經國大典』의 限品敍用 규정을 염두에 둘 때 양첩의 자손이었던 것이 확실하다.<sup>(25)</sup>

(22) 『日記』 1569년 12월 1일, 제2책, 156면, “金時洽 孝子副正金有誠之孫 而許浚嫡三寸叔父也”

(23) 위의 책, 1573년 2월 10일, 제3책, 386면, “昨日 送墨金時洽之婿 以會試上來者”

(24) 위의 책, 1571년 11월 2일, 제3책, 187~188면, 유희춘의 집을 방문했던 여러 사람들의 직책과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허준의 직책은 내의첨정이다. “希春以被推考 不得入副提望 只爲同知中樞府事 得閑於久勞之餘 以爲幸 (中略) 內醫僉正許浚 生員許敍並來去”

(25) 『經國大典』吏典「限品敍用」

문·무관 2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3품에 제한하고 천첩자손은 정5품에 제한하며, 6품이상의 양첩자손은 정4품에 제한하고 천첩자손은 정6품에 제한한다.

한편 『세보』에 의하면 허준의 형제로 형 허옥, 그리고 동생 허징이 기술되어 있다. 허옥에 대한 기록은 『세보』상에 단지 內乘이란 낮은 직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잘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그의 동생 허징은 문과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허통이 되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별시 문과 방목에 따르면 그는 1549년(명종 4)에 태어나 1586년(선조19) 병술 謁聖榜에서 병과로 합격하였다.<sup>(26)</sup> 대개 방목에는 ‘雁行’이라 하여 同生 형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허징의 경우 안항 조에 아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징은 허옥, 허준의 어머니인 김씨, 손씨의 소생이 아닌 이복형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허징은 吏文學官<sup>(27)</sup>을 지내던 중 文科에 합격하여<sup>(28)</sup>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후에 봉상시 첨정·승문원 교검, 교리 등 내직을 두루 거쳤다.<sup>(29)</sup> 그리고 후일 영월·파주 등지의 지방관을 역임하는 등 内·外職을 고루 거친 관료로 出世하였다.<sup>(30)</sup> 그러나 당시 그에 대한 世論은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문과 시험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작문을 베껴서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사람됨이 비루하고 팀욕스러워 칭찬할만한 점이 없을 뿐더러 봉상시 剎正 시절에는 祭享을 담당하면서 좋지 않은 일로 과직당하기도 하였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그의 관직 경력은 당시 문인이었던 蘇齋 墾守愼의 庶女 사위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sup>(32)</sup> 그럼으로써 신분적 제약을

(26) 『別試榜』「상백 古 351.306 b224m—1476/1801」(奎章閣 소장)

(27) 『芝峯類說』「外道部」

이수광은 「외도부」에 주로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는데, 이 가운데 한 어부가 누각과 궁궐이 호화로운 한 섬에 표류하였다가 生還한 일화도 있다. 학관 허징이 친히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許通을 통해 먼저 이문학관에 전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宣祖修正實錄』 권20 선조 19년 9월 1일 壬辰。

성균관에서 거행된 문과 시험에 丙科로 합격한 허징은 당시 이문학관으로 급제하였는데 남이 지은 것을 베껴 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29) 『宣祖實錄』 권114 선조 32년 6월 25일 壬寅。

(30) 소재 노수신의 행장에 의하면 허징의 직책이 목사로 표시되어 있어 지방관 行歷 을 알 수 있으며, 『실록』에 의하면 그가 영월군수·파주목사 등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31) 『宣祖實錄』 권114 선조 32년 6월 25일 壬寅; 위의 책, 권115 선조 32년 7월 24일 辛未.

(32) 『蘇齋集』「蘇齋先生行狀」405면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간 『한국문집총간』35)

극복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허준은 1546년(혹은 1547년)에 아버지 허론과 어머니 손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 허옥은 큰어머니인 적모 김씨로부터 태어났으며, 허준의 배다른 동생 허징은 또 다른 작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하였던 것이다. 이미 허준과 허징은 출생에서부터 서자로서 받는 사회적 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자로서의 신분의 제약은 허준과 허징이 모두 극복해야 할 최대의 난관이었다.<sup>(33)</sup>

### 3. 청년기의 許浚

앞절에서는 그동안 불확실하게 전해오던 허준의 부모와 형제의 실체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문제는 과연 허준의 출생지가 어디인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통설은 경기도 양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은 특히 경기도 양천이 허씨들의 오랜 世居地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천이 허준의 출생지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청년기를 보낸 곳은 어디였을까? 과연 산청에서 유의태에게 의술을 전수받은 것일까?<sup>(34)</sup> 필자는 비록 허준의 고향이 경기도 양천이었을지라도 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0대는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보

---

노수신의 행장에도 허징이 사위로 기록되어 있다. “側室有 三男一女 曰戒來戒難 戒後 女適牧使許生”.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견한 노수신의 『政廳日記』에도 허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서너이지만 허준의 집안과 노수신은 사돈 관계에 있었다.

(33) 허준과 허징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모두 좋지 못한 世論을 받았다. 허징의 경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출세에 집착하여 문과시험에서 남의 시문을 모방하다 문제가 되었으며, 또 祭享과 관련한 직책에 있으면서 官物을 부당하게 유용하였다. 한편 허준도 중국과의 藥材 무역에 개입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등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모두가 庸子로서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4) 유의태는 조선후기의 의관으로 허준 사후 인물이므로 허준의 스승이라는 설이 잘못되었음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생 후 22세가 되기까지의 허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그가 審藥이라는 낮은 직책으로 의학공부를 시작했을 젊은 시절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허준은 22세되던 해인 1568년 서울에 거주하면서 유희춘을 만나고 있다. 유희춘은 이때 관직 생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에는 이 해 2월에 ‘허준이 찾아오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허준과의 대면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이야말로 허준의 젊은 시절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적어도 이 사실을 통해 허준이 20대 초반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35)</sup>

그렇다면 그가 서울에서 유희춘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허준의 嫡母인 김씨부인의 출생지가 유희춘과 동향인 해남이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외삼촌 김시흡과 유희춘이 서로 문안 왕래를 하는 친분관계였다는 점으로 확대된다.

한편 허준은 후일 내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라도 약재의 진상에 관여하고 있다. 25세가 되던 1571년 11월 허준은 우황 등 전라도 지역의 貢物을 내의원에 납입하는 문제에 대해 모두 유희춘에게 보고하고 있다.<sup>(36)</sup> 이는 그가 일찍이 審藥으로 전라도 지방 약재를 진상하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sup>(37)</sup> 이처럼 허준은 젊은 시절을 전라남도 지역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에 적어도 17세기 전반까지 결혼 후 거처와 출산이 대개 外家에서 이루어졌던 점,<sup>(38)</sup> 그리고 유희춘이 허준을 적모 김씨 집안과 연관시켜 기술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35) 『日記』 1568년 2월 20일.

허준은 1568년 한해만도 유희춘을 거의 2달에 한번씩 방문하였다.

(36) 위의 책, 1571년 11월 7일, 제3책, 190면, “許浚來言 全羅道牛黃藥材 今日無事納于內醫院云”

(37) 『약파만록』에 의하면 허준이 審藥으로 중국에 다녀온 전설을 기록해 두었다. 비록 전설에 불과한 일이지만, 허준이 심약직을 가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개 지방의 심약직을 거쳐 중앙에 진출하는 것은 양예수의 경우도 그러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심약이 공물 납입과정에서 많은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혜민서 의관들은 거꾸로 지방직인 審藥 근무를 자원하기도 하였다(김 호. 1994 「正祖代 醫療政策」『韓國學報』82 243면).

(38)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일지사).

도 허준의 출생지가 비록 해남은 아니었다해도 그 성장지가 해남일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해남에서 자란 허준은 일찍이 해남과 담양에 왕래하며 거주하던 학자이자 官人 유희춘과의 안면을 통해 나중에 서울에서 왕래가 가능하였으며 내의원에 천거되는 등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허준이었기에 유희춘의 부탁이라면 전라도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그의 친구들을 치료차 방문하였다. 예를 들어 1569년 유희춘은 당시 허준에게 나주에 사는 羅士忱과 그의 아들 羅德明의 병을 진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또한 남원에 거주하는 申昕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① 허준을 초청하여 나사침의 병을 가 봐달라고 하니 허준이 ‘氣가 허해서 중풍이 된 것인데 아직 치료가 가능하고 羌活散이 가장 묘하다’고 한다.<sup>(39)</sup>
- ② 허준이 와서 신흔의 병이 비록 중하지만 치료할 수 있다 한다.<sup>(40)</sup>
- ③ 허준이 와서 나덕명의 약재를 이야기하고 갔다.<sup>(41)</sup>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허준이 청년기를 전라도 지역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분명해지며 특히 유희춘이라는 인물은 허준의 출세에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허준과 유희춘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예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허준은 유희춘이 관직을 제수 받아 서울에 상경하거나 또는 하직하여 담양이나 해남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문안 인사를 드릴만큼 유희춘에 대해서는 예를 다했다. 그리고 유희춘 역시 당대의 많은 인사들과 의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허준만큼 의술 이외의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돌보았던 사람은 없었다.<sup>(42)</sup>

(39) 『日記』 1569년 6월 6일, 제2책, 12면 “招許浚 往見羅兄之疾 而來告曰 因氣虛中風 尚有可治 姜活散最妙”

(40) 위의 책, 1569년 7월 2일, 제2책, 60면, “許浚 來言申昕之疾 雖重而可治”

(41) 위의 책, 1569년 7월 15일, 제2책, 69면, “許浚來議羅德明藥材而去”

(42) 유희춘이 서울에 거주할 때는 양예수, 이공기 등 당시 내의원의 의관들과 예조의 의관들이 자주 왕진하였으며 담양과 해남에 거주할 때는 박한무, 김복희 등이 그를 찾아왔지만 허준처럼 서울에서 담양으로 유희춘을 찾아뵈는 일은 없었다.

물론 허준이 유희춘을 방문할 때에 치료와 의학적인 문제로 찾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았지만 이외에 서책을 선물하는 등 다른 의관과는 사뭇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허준이 의관직에 본격적으로 출사하기 이전인 20대 초반에는 이러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1568년 2월 22일 방문시에 허준은 유희춘에게 『老子』『文則』『造化論』 등 3책을 선물하였으며 유희춘은 이를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sup>(43)</sup> 한편 같은 해 4월 20일에는 『좌전』 10책과 唐本 毛詩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4)</sup> 이 사실을 통해 허준이 적어도 어려서부터 유학적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sup>(45)</sup> 당시 서책은 서울의 경우 서책 장수로부터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sup>(46)</sup> 그러나 그 값이 고가여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으므로 희춘은 책을 보내오는 허준에게 부채 등으로 답례하였다.<sup>(47)</sup>

전라도 지역에서 성장한 허준이었지만 이미 20대에 서울지역에까지 의술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허준이었기에 유희춘은 그를 불러 자신은 물론 부인의 병치료를 부탁하였다.

① 허준이 부름을 받아 와 부인의 舌腫病을 논의하였다.<sup>(48)</sup>

② 내가 어제부터 얼굴의 좌측에 종기가 생겨 허준의 말을 듣고 지렁이의 즙을 뒤랐다.<sup>(49)</sup>

③ 저녁에 허준이 와서 소토환의 지을 일을 의논하였다.<sup>(50)</sup>

(43) 『日記』 1568년 2월 22일, 제1책, 134면, “許浚 送老子文則造化論三書來 甚感且喜”

(44) 위의 책, 1568년 4월 20일, 제1책, 198면, “許浚 送左傳十冊 唐本毛詩來”

(45) 유희춘의 『日記』에는 허준 이외의 다른 의관들이 방문한 예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허준과 같이 서책을 선물한 경우는 한번도 보이지 않는다. 허준은 동생 허정이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서 유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는 『醫林撮要』「本國名醫」의 허준 항목에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여 經史에 두루 박학하였다는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46) 『日記』 1568년 3월 14일, 제1책, 155면, “書冊倣宋希精來謁 參同契皇華集諱文瑣錄杜詩等而去”

(47) 위의 책, 1568년 7월 24일.

(48) 위의 책, 1569년 6월 23일, 제2책, 32면 “許浚 被招來 議設腫病而去”

(49) 위의 책, 1569년 6월 29일, 제2책, 36면, “余自昨日 覺面左邊有腫 今日聞許浚之言 以地龍汁塗之”

(50) 위의 책, 1569년 9월 9일, 제2권, 109면, “昨夕（中略）許浚 來議小菟絲圓製事”

그리고 친구나 친지들의 병문안을 허준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허준이 와서 인사하니 송순의 병을 가보게 하였다.<sup>(51)</sup>

유희춘의 허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매우 큰 것이었다. 1569년 윤6월 유희춘은 이조판서 洪疊에게 허준의 內醫院職 천거를 부탁하였다.<sup>(52)</sup> 허준의 첫번째 내의원 출사였다. 그동안 그의 의술이 서울의 양반들에게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희춘의 도움으로 모든 의원들의 선망인 내의원에 출사한 것이다.<sup>(53)</sup>

#### 4. 內醫院 생활

당시 서울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의술의 경우 최고 수준인 내의원 의원들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이같은 높은 의학 수준에 접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내의원 의관 중에서도 최고의 의원은 어의 양예수였다. 유희춘은 당대 최고의 의관 양예수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양예수 역시 유희춘이 서울에 거주하면 매번 문안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던 관계였다.

1570년 6월 양예수는 유희춘을 찾아와 그가 먹을 보약을 의논하고 돌아갔다.

양예수가 방문하여 ‘이황원 한劑는 두 달이면 다 먹을 수 있고 경옥고 한 제는 하얀 항아리로 하나가 되는데 일년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한다.<sup>(54)</sup>

(51) 위의 책, 1569년 7월 2일, 제2권, 60면, “許浚來謁 令往視宋四宰之疾”

(52) 『宣祖實錄』 권3 선조 2년 6월 4일 丙子.

당시 이조판서는 홍담으로 유희춘이 홍담에게 허준의 선처를 부탁한 것이 확실하다.

(53) 『日記』 1569년 윤6월 3일, 제2책, 38면, “爲許浚 通簡于吏判 乃薦于內醫院也”

(54) 위의 책, 1570년 6월 12일, 제2책, 291면, “楊醫禮壽來言 二黃元一劑 二朔可畢 瓊玉膏一劑 乃一白樽 服至一年 每朝以銀匙 或桑木匙抄取”

1573년에 양예수는 유희춘의 부인이 질병으로 고생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희춘의 집에 들르기도 했다.<sup>(55)</sup> 뿐만 아니라 친구의 병 문안 부탁도 들어주었다. 1570년 박순은 병을 앓고 있었고, 양예수는 유희춘의 청으로 박순을 찾아뵈었다. 당시 박순의 병고가 깊었던 모양으로 허준과 양예수 등이 모두 유희춘의 청으로 박순을 자주 찾아가問診하였다. 유희춘은 양예수와 같은 名醫가 자신의 말대로 친우를 문안한 것에 감격하고 있다.

어제 양예수가 나의 청으로 박순을 찾아보고 응진환의 약을 쓰기로 하여 약간 나았다고 하므로 매우 기쁘다.<sup>(56)</sup>

거의 매월 양예수는 유희춘을 문안하였으며 8월달에는 양예수와 허준이 모두 유희춘을 방문하였다.<sup>(57)</sup> 따라서 양예수와 허준은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유희춘을 매개로 해서 자연히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양예수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의 큰 아들 楊弘茂가 1559년생이고 양예수의 의과 합격연도가 1549년(명종4)인 점을 감안하여<sup>(58)</sup> 적어도 20대 이후에 의과에 합격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라면 당시 양예수의 나이를 40대 이후 50대까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비해 허준은 20대 전반의 젊은이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양예수는 허준의 아버지뻘이 되는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것이다.

특히 양예수의 의술은 당대 최고였으며 그가 남긴 『醫林撮要』가 후일 『동의보감』의 기초가 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sup>(59)</sup> 양예수를 만난 것은 허준

(55) 위의 책, 1573년 1월 5일, 제3책, 346면, “楊禮壽來 余問夫人病藥”

(56) 위의 책, 1570년 7월 29일, 제2책, 352면, “食後出門 歷訪朴判書和叔 昨日楊禮壽 因余請而往見 以凝神散命藥 昨夕 服一度 頗出汗而熱亦感 (中略) 深喜深喜”

(57) 위의 책, 1570년 8월 1일, 제2책, 353면, “楊禮壽 來視吾脈 以爲沈緩乃壽徵云”  
위의 책, 1570년 8월 12일, 제2책, 364면, “許浚來去”

(58) 이성무 편, 1990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 96면 (정신문화연구원)

(59) 박찬국, 1991 「東醫學의 성립에 대한 연구」『龜巖學報』 1 23~27면.

18세기 서울에 거주하였던 學人 유만주는 그의 일기『欽英』에 양예수에 대한 口傳을 적었다. 특히 鄉藥材이자 강한 약재인 人蔘을 선호한 양예수의 처방에 대해 언급하였다. 허준 역시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楊禮壽 宣祖 朝神醫也 孝廟時 常在孝廟 密講閉關之圖 諭禮壽曰 國人有病 何必唐藥料然後 始可治哉 爾其以鄉材製藥 禮壽退而撰鄉藥集驗方三卷 其方全用人蔘 盖既不用唐材 故不得不歸重於蔘也”

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허준에게는 이미 내의원 의원으로서 확고한 명성을 지닌 양예수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술을 傳受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이 시기 내의원에는 양예수의 의학적 맞수라 할만한 어의 안덕수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예수에게도 허준과 같은 젊고 능력 있는 제자를 키워 자신의 의학론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sup>(60)</sup>

비록 허준이 이미 20대에 의술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는 하였지만 양예수의 명성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유희춘은 양예수를 거론할 때 ‘名醫’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허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1570년 박순이 傷寒 등으로 위태로운 때에도 유희춘은 허준보다는 양예수에게 박순의 치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서도 위의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sup>(61)</sup>

양예수의 아버지 楊建은 副司勇의 낮은 무직 출신이었다.<sup>(62)</sup> 비록 아버지는 무직 출신이었으나 그의 아들 삼형제 곧 楊仁壽, 양예수, 楊智壽는 모두 의관으로 입신하였으며 심지어 형 양인수는 선조의 어린 시절 스승이기도 한 學人이었다. 후일 왕위에 오르게 된 선조는 양인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동반직에敍用하려고 하는 등<sup>(63)</sup> 대우가 각별하였다. 그리고 양예수의 아들들은 모두 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진사가 되는

(60) 당시 양예수는 강한 약재를 사용하여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峻寒劑 처방을 선호하였고 이를 비판하였던 안덕수는 강한 약재보다는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효과의 처방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양예수의 준한 전통이 허준에 계승되어 조선의학의 전통으로 성립되었다.『於于野談』『醫藥』條, “당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양예수의 투약 방법은 霸道와 같아서 집중적인 투약으로 효과를 빨리 보는 반면 사람을 상하는 일이 많다지만 안덕수의 방법은 王道와 같아서 효력을 느리지만 사람을 상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世論은 모두 안덕수를 두둔하였다. 양예수도 昭敬大王 때 명의의 한 사람이다.”

(61) 『日記』 1570년 7월 29일, 제2책, 352면, “食後出門 歷訪朴判書和叔 昨日楊禮壽 因余請而往見 以凝神散命藥 昨日服一度”

(62) 이성무 편, 1990 앞의 책, 96면.

(63) 『日記』 1568년 10월 24일, 제1책, 382면, “昨日政 上以備忘記 下教吏曹曰 醫楊仁壽 潛邸時師傅也 此人東班六品敍用可也 予自不能忘昔日之恩 故言之爾 吏曹回啓 仁壽乃微賤之人 東班似難 上又敍雖至微至賤 師傅之恩 不可忘也” 당시 諫官들의 반대로 동반직 서용이 어려워지자 후일 선조는 양인수를 서반 상호군의 직에 임명하였다.

등 점차 신분이 상승하고 있었다.

허준에게 양예수와 돈독한 친분을 맺는 일은 의학이론의 전수와 함께 임금 선조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였다. 당대 최고의 의사 양예수를 만난 허준에게 그는 스승이자 곧 넘어야 할 산이었으며 또 신분적 제약을 극복해 가는 출신의 모범이기도 한 셈이었다.

한편 양예수의 의학 스승은 張漢雄이라는 사람이었다. 장한웅에 대해서는 허균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장한웅은 학병의 귀신을 보고 마음대로 다스렸다는 점과 劍解라는 도술을 부렸던 異人으로 유명했다. 도가의 서적대로 수련하던 산인이었다. 장한웅은 서울 외곽인 동대문밖에 살았는데, 양예수 역시 서울 어느 지역에 살면서 장한웅의 의술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시 양예수가 저술한 『醫林撮要』는 때로는 스승의 이름을 딴 『張氏醫方』이라고도 불리웠다.<sup>(64)</sup>

장한웅은 양생 등과 같은 道家의 의학에 경도되었던 인물이었다. 그에게서 수학한 양예수 역시 도가적 의학의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젊은 시절 양예수를 만남으로써 많은 영향을 받았던 허준의 의학에 기본적으로 道家의 성격이 농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sup>(65)</sup> 내의원에서 20대를 보낸 허준에게 의관 생활 자체가 스승 양예수의 의술을 전수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허준이 어의로서 처음 『실록』의 기록에 등장하는 1575년 즉 그의 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유희춘의 『일기』에 서술된 그의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 ① 아침에 허준이 와서 인사를 하고 부인이 먹을 오수유환을 상의하고 갔다.<sup>(66)</sup>
- ② 허준이 나의 부름을 받고 와서 韓景斗·金晉 등을 봐주고 갔다.<sup>(67)</sup>

(64) 山人 장한웅은 허균의 『惺所覆瓿藁』와 홍만종의 『海東異蹟』등에 異人으로 기록되어 있다(『성소부부고』 권8 「장산인전」; 『해동이적』 「장한웅」).

(65) 『東醫寶鑑』의 內景篇은 도가 의학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양예수 이외에 『동의보감』 편찬에 초기에 참여했던 儒醫 古玉 鄭碏 역시 도가에 경도된 사람이었다.

(66) 『日記』 1570년 5월 7일, 제2책, 196면, “朝許浚來謁 議夫人所服吳茱萸丸而去”

(67) 위의 책, 1570년 6월 5일, 제2책, 279면, “許浚 被余招來 見韓景斗金晉而去”

③ 허준이 와서 담양 나중부의 아들의 濕疾 치료약으로 위령탕을 의논하고 갔다.<sup>(68)</sup>

④ 허준이 8량의 이황원을 지어 가지고 왔다.<sup>(69)</sup>

그는 내의원 생활 도중에도 계속해서 유희춘과 그의 부인 그리고 친지들의 병문안을 잊지 않았다. 1570년 12월 12일 유희춘이 해남으로 떠날 채비를 하므로 허준은 역시 부인의 약물인 이황원 8량을 준비해 왔다.<sup>(70)</sup>

그리고 종종 인편을 통해 유희춘에게 약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1571년에는 參禮 察訪 편에 유희춘에게 2가지의 香을 보냈다.<sup>(71)</sup> 유희춘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허준은 이전처럼 문안을 하지 못하는 대신 약물 등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1571년 11월 유희춘이 서울에 다시 올라오자 허준은 곧 그를 방문하였다. 이때 이미 그는 종4품의 內醫 前正에 올라 있었다.

회춘은 추고를 당한 사람이라 하여 부제학의 망에 들지 못하고 다만 동지증후부사가 되었으니 오래 피로하던 차에 잘 되었다. (중략) 內醫 前正 허준, 생원 許歲이 왔다가다.<sup>(72)</sup>

허준은 이해 11월에도 2일 방문 이외에 7일, 그리고 27일 등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sup>(73)</sup> 허준은 단지 인사차 유희춘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녹용 등 구입이 어려운 약재를 대신 구해주기도 하였다.<sup>(74)</sup>

그의 나이 27세가 되던 1573년 11월 허준은 이제 정3품직에 해당하는 내

(68) 위의 책, 1570년 6월 30일, 제2책, 313면, “許浚來議羅仲孚男濕藥胃苓湯而去”

(69) 위의 책, 1570년 9월 22일, 제2책, 393면, “許浚持所製二黃元八兩來”

(70) 위의 책, 1570년 12월 12일, 제2책, 447면, “以許浚所 二黃元八兩一劑 贈夫人令服”

(71) 위의 책, 1571년 7월 15일, 제3책, 127면, “參禮察訪 自京下來 金堯敍 極感厚遺 許浚送二香來”

(72) 위의 책, 1571년 11월 2일, 제3책, 187~188면, “希春以被推考 不得入副提望 只爲同知中樞府事 得閑於久勞之餘 以爲幸 前知李司諫愼喜男大司憲盧守慎衛將李湛正郎許忠吉金山郡守成世平內醫前正許浚生員許歲並來去”

(73) 위의 책, 1571년 11월 7일, 제3책, 190면,註35) 참조; 위의 책, 1571년 11월 27일, 제3책, 206면, “歸舍見許浚來謁”

(74) 위의 책, 1573년 3월 8일, 제3책, 418면, “許浚來受了鄭判書書簡 乃內醫院提調處乞鹿茸也”

의원정에 올랐음이 확인된다. 이달, 3일에 유희춘의 옆집에 살았던 생원 石守道가 인사를 하러왔을 때 허준도 함께 왔는데 『일기』에는 허준의 직위를 内醫 正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sup>(75)</sup>

내의원 천거는 바로 유희춘 덕분이었고 또 양예수를 만나 의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배경도 유희춘 덕분이었기 때문에 허준의 유희춘에 대한 배려는 그의 아들 유광룡의 병고에까지 이르렀다. 1574년 3월 허준은 유광룡을 위해 平胃元에 맥문동을 가한 약물과 清肺飲 등의 약을 써 주었다.<sup>(76)</sup> 허준이 보여준 유희춘의 친지들에 대한 배려는 이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자식들의 치료에까지 이르렀다.

① 校書館 사람이 司中 허준을 데리고 와서 내 말을 들었다. 내일 權得卿의 집에 가서 그 집 아이의 침맞을 혈을 살펴보라고 할 참이었다.<sup>(77)</sup>

② 어제 허준과 더불어 尹寬中의 濕渴證을 논하자 乾葛桑枝湯이 좋다고 하더니 오늘 상지탕 몇 칩을 보내왔다.<sup>(78)</sup>

이해 허준의 나이는 29세였다. 『세보』에는 이때 그가 의과에 합격하였다 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내의원 의원으로서 활동이 무르익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의과 합격은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허준이 30세가 되는 이듬해 1575년부터 『실록』에는 허준이 내의원 의원으로서 왕의 진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과 합격과도 관련 있는 일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安光翼 혹은 양예수 등의 다음에 거명되고 있기는 했지만 내의원 어의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른 것이다.

名醫 안광익, 허준이 내의원 의원으로 왕의 병을 진찰하다.<sup>(79)</sup>

(75) 위의 책, 1573년 11월 3일, 제4책, 160면, “內醫正許浚 石守道來謁 守道居水標石里 與我隣居 生員誠之父而癸酉生也”

(76) 위의 책, 1574년 3월 26일, 제4책, 312면, “內醫許浚來謁 余令視光龍之病 浚以加入平胃元麥門冬清肺飲等藥 命之”

(77) 위의 책, 1574년 4월 29일, 제4책, 350면, “校書館人持司中許浚 來聽我言 明日赴權得卿家 點其兒應針之穴爲計”

(78) 위의 책, 1574년 5월 18일, 제4책, 369면, “昨與許浚 論尹寬中濕渴證 以爲宣服乾葛桑枝湯 今日送桑枝□服來”

(79) 『宣祖實錄』 권9 선조 8년 2월 15일 甲申.

이제 허준은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금의 어의가 되어 入診하게 되었다. 그의 실력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던 허준의 내의원 생활은 36세 되던 1581년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脈經을 왕명에 의하여 직접 교정 출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sup>(80)</sup>

36세의 나이로 당시 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경락서 『纂圖脈』을 교정하고 개편하였던 허준은 그 발문에서 인체의 경락은 곧 나라의 기강과 같다는 논리를 펴면서 지금까지 醫論이 미숙하여 이와 같은 기본서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신의 손으로 가능해 졌음을 은근히 자축하고 있다.<sup>(81)</sup>

이로부터 허준의 내의원 내 위치는 점차 상승하였다. 대개의 入診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으며,<sup>(82)</sup> 1590년에는 당시 왕자(후일 광해군)을 구료한 공으로 당상관의 加資를 命받기에 이른다.<sup>(83)</sup> 이해 12월 광해군이 瘡瘍에 걸려 고생하자, 다른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그가 求活하였던 것이다.<sup>(84)</sup> 당시 허준은 內醫正이라는 3품직에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堂下官職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堂上官에 이르는 가자는 가벼이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다. 서자로서 그것도 의관이라는 賤職의 기술관인이 당상관의 품계를 받는 일은 많은 朝官들에게 불편한 일이었다. 다음달인 159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는 동안 사간원은 허준에게 加給된 資品의 환수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조의 의지는 확고하였다.<sup>(85)</sup>

한편 광해군을 구료함으로써 후일 허준은 선조의 굳은 신임과 함께 광해군의 깊은 애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sup>(86)</sup> 이듬해인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80) 1581년 『纂圖方論脈訣集成』 4권을 교정출간했다.

(81) 『纂圖方論脈訣集成』 「纂圖脈訣跋」

『찬도매』은 『경국대전』 禮典 「諸科條」에 의과 초시에 읽어야 할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 취재 때에도 이를 암송하였다.

(82) 『宣祖實錄』 권21 선조20년 12월 9일 癸亥.

1587년 왕의 건강이 회복되어 어의 양예수, 안덕수, 이인상, 김윤현, 이공기, 허준, 남옹명 등에게 각각 녹피 1장을 하사하다.

(83) 『宣祖實錄』 권24 선조 23년 12월 25일 癸巳.

(84) 『診解痘瘡集要』 「跋文」

(85) 『宣祖實錄』 권25 선조 24년 1월 3일 庚子, 4일 辛丑.

(86) 허준은 유배 중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왕자시절의 광해군을 구료한

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왕궁을 떠나 파천하는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나이 47세였다.

임진왜란시 양예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의주까지 配從하기 어려웠는데, 허준에게는 이점이 오히려 호기가 되었다.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양예수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내의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87)</sup>

임란이후의 『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왕실의 모든 침구를 허준이 도맡아 入侍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95년 4월 선조의 침구 시술도 허준이 首醫로써 入侍하였는데 한달 여 동안 거의 이틀에 한번씩 선조를 만났으며 그때마다 선조에 대해 의료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sup>(88)</sup>

드디어 1596년 3월 3일 선조는 허준에게 동반직을 제수하였다. 그의 나이 51세였다.

1596년(선조29년)에는 왕세자의 병을 고친 공으로 허준에게 東班職의 除授가 있다. 김응탁, 정례남 등도 승진하다. 加資의 명을 받았다.<sup>(89)</sup>

수의였던 양예수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아졌으며, 허준이 의학에 가장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수의의 역할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내의원에 줄곧 봉직하던 허준으로서는 드디어 내의원 首醫라는 최고의 직책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제 민간에서도 내의원의 의원을 거론할 때 허준이 항상 먼저 운위되는 상황이 되었다. 『瑣尾錄』의 저자인 오희겸은 임란이 끝나갈 무렵인 1599년 지방을 떠돌다가 약재를 사러 서울의 내의원에 올라와 이때 들은 내의들의

인연으로 돋독한 관계가 형성된 탓인지 광해군은 그를 자유롭게 궁궐에 출입시켜 의서를 열람케 하였다. 때문에 조정 관리들의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光海君日記』 권15 광해군 1년 4월 21일 壬申).

(87) 임란을 전후한 시기에 內醫院 御醫 가운데 허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최근 발견된 『政廳日記』가 주목된다. 이 자료는 1588년 전후로 濟疾 치료 중이었던 王宣祖를 노수신이 近侍하면서 기록한 일기로, 치료 중의 飲食·藥材 등 임금의 질병과 처치 상황이 상세하다. 그런데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內醫 명단을 살펴보면, 楊智壽·李公沂 등이 자주 등장할 뿐 허준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88) 『宣祖實錄』 권62 선조 28년 4월 13일 乙酉  
이날 별전 편방에서 왕의 鍼灸를 시작하여 거의 한달여 기간을 치료하고 있다.

(89) 위의 책, 권73 선조 29년 3월 3일 庚午.

이름을 듣고 기록해 두었는데 여기서도 허준이 제일 처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sup>(90)</sup>

허준이 55세가 되던 1600년(선조33년) 수의였던 양예수는 사망하고 만다. 이제 허준은 명실상부한 수의로 대접받게 되었다.<sup>(91)</sup> 이후 그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의서 편찬에 주력함으로써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라는 명성에 부합하게 되었다.<sup>(92)</sup>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조교)

(90) 『瑣尾錄』第七 己亥(1599:宣祖32) 正月

“十一日（中略）昏 李殷臣自京還來 貿藥事也 升陽所入 內醫院庫直處貿來 而命藥則內醫□互相不同 不得已前日所服升陽湯爲定云 內醫則許浚李公器云云 青魚三尾 貿來 故卽薦新（中略）”

(91) 『宣祖實錄』권132 선조33년 12월 1일 庚午.

(92) 首醫가 된 이후 허준의 行蹟은 김호, 1994 「許浚의 『東醫寶鑑』研究」『韓國科學史學會誌』제16권 제1호 참조.